맨손 파일럿 원윤종·맨발 스케이터 이상화 '속도전의 비밀'

〈봅슬레이〉 〈스피드스케이팅〉

호기심 천국

봅슬레이 파일럿 원윤종 손으로 로프 컨트롤 최단코스 찾는 정교한 기술 필요…장갑 안껴
맨발의 이상화, 빙질 느끼며 달리는데 도움 양말 신으면 발이 안에서 미세하게 밀려 방해

봅슬레이는 정교한 조종을 위해 파일럿(왼쪽 사진 맨 앞)이 장갑을 끼지 않고 맨손으로 탑승한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제 이상화는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 맨발로 스케이트를 착용한다. 스포츠동아 DB

겨울 올림픽은 왠지 두툼한 장갑과 따뜻한 겨울양말이 연상된다. 그러나 맨손과 맨발로 경기에 참가하는 겨울 올림픽 종목이 있다.

봅슬레이는 바람이 쌩쌩 부는 혹한의 얼음 트랙에서 열리는 종목이다. 그러나 봅슬레이 파일럿은 장갑을 끼지 않는다. 팀 코리아 봅슬레이의 기둥 원윤종(33·강원도청)의 경기 모습을 보면 장갑을 끼고 있는 브레이크맨과 달리 맨손으로 썰매를 밀다 탑승한다. 같은 썰매 종목인 루지는 스파이크가 달린 특수 장갑을 끼고 출발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다른 점이다.

한국스포츠개발원(KISS) 민석기 박사는 "봅슬레이는 엄청난 속도로 주행하는 썰매를 파일럿이 정교하게 조종하는 종목이다. 손으로 미세한 컨트롤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파일럿은 장갑을 끼지 않는다. 슛을 던지는 농구선수가 장갑을 끼지 않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봅슬레이 파일럿은 조종대에 연결된 로프를 두 손으로 당기며 썰매를 조종한다.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데 활주라인과 최단 코스를 찾아 주행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칫 작은 실수는 큰 전복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스피드스케이팅 여제' 이상화(29·스포츠토토)가 스케이트를 벗었을 때 드러나는 맨발은 자주 화제가 됐다. 온통 굳은살이 가득한 발은 이상화가 얼마나 치열하게 훈련했는지 그대로 모든 노력을 담고 있다. 이상화 뿐 아니라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는 모두 양말을 신지 않는다. 특수 제작돼 자신의 발에 꼭 맞게 제작된 스케이트를 통해 빙질의 감각을 그대로 느끼며 역주한다.

KISS 송주호 박사는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가 양말을 신을 경우 안에서 미세하게 밀리며 경기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스케이트와 발이 최대한 일체화되어야 최상의 경기력을 펼칠 수 있다. 스케이트가 맞춤형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맨발이 가장 불편함이 없다. 얼음의 면을 더 민감하게 느끼며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도 강점이다"고 말했다.

어린아이들이 실내 놀이터에서 더 빨리 뛰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양말을 벗는 이치와 비슷하다. 그러나 쇼트트랙 선수들은 양말을 착용한다. 속도에 모든 것을 거는 스피드스케이팅과 달리 곡선 주로가 많고 순간적인 끼어들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목움직임을 돕는 스포츠 양말이 선호된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북에 끌려다니는 정부, 눈치만 보는 체육계

취재파일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北, 금강산 공연 취소 '평화 올림픽' 퇴색 정부-체육계 손발 안맞아 일정마다 삐걱

"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해서요…."

개막을 8일 남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라는 기치가 무색할 정도로 심각한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졸속 행정'이 '준비 차질'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개최국으로서 대회를 이끌고 나가야할 정부 당국은 북한에 주도권을 내준 듯 끌려 다니고, 올림픽 전반을 책임져야하는 체육계는 정부 눈치만을 살피느라 제대로 된 정보도 챙기지 못하고 있다.

●북만 쳐다보는 정부

남북은 1월 중순 연달아 벌인 차관급 실무회담과 스위스 로잔 담판을 통해 평창올림픽 합의를 이끌어냈다. 주요 골자는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서울-금강산 문화예술공연 개최, 마식령스키장 합동훈련 진행이었다. 큰 틀을 완성한 정부는 여론의 일부 반대를 무릅쓰고 세부사항을 추진해나갔다.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를 스포츠를 통해 해동시키겠다는 일념에서였다.

그런데 개막이 임박할수록 곳곳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첫째 문제는 북한의 일방적인 행보에 끌려 다니는 정부의 대응이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금강산 예술공연 취소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오후 10시께 일방적으로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던 합동문화공연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공연을 나흘 남긴 시점에서 우리 정부는 날벼락을 맞았고, 평화올림픽의 상징 중 하나였던 공연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이는 북한 '눈치 보기' 논란을 가중시키는 불씨가 됐다. 이미 현송월 모란봉관현악단장의 방한을 앞두고 취소와 번복이 오간 터라 여론의 공세는 더욱 날카롭게 정부를 향했다. 동시에 대회가 끝날 때까지 북한에 휘둘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커졌다.

촌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북한을 믿고 마식령스키장 1박2일 합동훈련만큼은 정상진행 되리라고 자신했던 정부는 31일 선수단 출발 직전까지 관련사항을 확정짓지 못했다. 이번엔 미국이 문제였다. 이동편으로 전세기가 낙점됐는데 이 같은 방안이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지를 놓고 미국과 이야기를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출발 당일인 31일 새벽에서야 최종조율을 마쳤고, 선수단은 이날 오전 전세기를 타고 양양공항을 출발해 북한 갈마비행장을 거쳐 마식령스키장에 도착했다.

●정부만 바라보는 체육계

더욱 답답한 대목은 정부와 체육계의 호흡이다. 정부가 북한과 손발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서 덩달아 체육계까지 흔들리고 있다.

발단은 북한 여자아이스하키 선수단이 방한한 지난달 25일이었다. 당시 논란의 중심에 선 단일팀을 두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됐지만,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관련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방한과 진천선수촌 취재를 놓고 협회는 통일부의 결정만을 바라봤고, 이는 결국 보도 제한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일각에선 문화체육관광부가 취재 전반을 관리하기로 한 4일 스웨덴과의 평가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같은 해프닝은 스키 합동훈련에서도 벌어졌다. 교통정리를 해야 할 대한스키협회는 출발 임박 전까지 확실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통일부가 사실상의 전권을 가져갔기 때문이다. 협회 관계자는 막판까지 "협회가 선수들에게 일일이 연락해 합동훈련 의사를 타진하고 있지만, 언제 떠날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스포츠1부 기자

러시아 선수들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국기도 없는 단복을 입고 개인자격으로 참가한다. 구 소련을 포함해 무려 9번이나 종합우승을 차지한 겨울올림픽 절대 강자의 체면이 말이 아니다. 러시아 스피드스케이팅 선수들이 '러시아에서 온 올림픽 선수(Olympic Athlete from Russia·OAR)'라는 마크를 가슴에 달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AP뉴시스

러시아 9회 최다우승…독일 379개 최다메달

동계올림픽의 강국들

100년 가까운 세월을 이어온 동계올림픽에는 지구촌의 숨은 역사가 깃들어 있기도 하다. 초대 대회였던 1924년 프랑스 샤모니부터 23번째 대회인 2018년 대한민국 평창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화합과 반목의 파노라마가 동계올림픽 역사 안에 숨쉬고 있다.

최다우승과 최다메달 등 다양한 기록을 통해 동계올림픽의 역사를 돌아보면 역대 대회에서 가장 많은 종합우승을 차지한 나라는 러시아다. 구(舊) 소련 시절을 포함해 무려 9번이나 순위표 꼭대기를 차지했다. 8회 우승을 거둔 노르웨이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러시아는 1956년 이탈리아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첫 우승을 맛본 뒤 미국 스쿼밸리와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를 거쳐 3연패를 달성했고, 다시 1972년 일본 삿포로부터 1988년 캐나다 캘거리에 이르기까지 5연패라는 대기록을 남겼다. 5회 연속 종합우승은 지금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호를 러시아로 바꾼 뒤에는 소련 시절 위용이 나오지 않고 있다.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대회가 처음이자 마지막 우승이다. 안방에서 열렸던 2014년 소치 대회에선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도핑(금지약물 복용) 조작 스캔들이 터지며 금메달 4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개를 박탈당해 우승을 노르웨이에 내주고 말았다. 안방에서 수모를 겪은 러시아는 평창에서도 국가 자격 참가가 좌절돼 10회 우승을 다음으로 미뤄야하는 처지다.

동계올림픽 통산 메달 순위

		금	은	동	합계
1	독일	137	136	106	379
2	노르웨이	118	114	102	334
3	러시아	128	97	94	319
4	미국	97	103	84	284
5	오스트리아	59	78	82	219

※ 독일은 동독-서독 시절, 러시아는 소련 시절 포함

그렇다면 최다우승 국가인 러시아가 가장 많은 메달을 가져갔을까. 그렇지 않다.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가장 많은 메달을 수확한 나라는 독일이었다. 동독-서독 분단 시절을 포함해 무려 379개의 메달을 따내 굴지의 라이벌 국가들을 제쳤다.

1949년부터 1990년까지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었던 독일은 분단의 아픔 속에서도 동계 강국의 명성만큼은 잃지 않았다. 연합팀(1956·1960·1964년 대회)을 내세울 때도, 개별 자격으로 참가할 때도 상위권을 형성한 나라가 독일이었다. 분단과 통일 시대를 종합하면 금 137개, 은 136개, 동 106개로 최다메달 1위다. 한편 사상 처음으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는 한국은 금 26개, 은 17개, 동 10개로 그동안 총 53개를 목에 걸었다. 이는 전체에서는 13위, 아시아 대륙에서는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다. 고봉준 기자

알파인스키 출전불가 논란, 2월 첫주에 결판

대표 선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첫 공판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불거진 알파인스키대표팀 출전불가 논란이 2월 초 법정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31일 오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나)는 경성현(28·홍천군청) 측이 대한스키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평창올림픽 국가대표 선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관련 첫 번째 공판을 열고 "2월 2일까지 양 측으로부터 준비서면을 받아본 뒤 5일 혹은 6일 선고공판을 열겠다"고 전했다.

앞서 경성현을 비롯한 알파인스키 선수 측은 "1월 24일 협회의 평창올림픽 대표선발과 관련해 결과가 공정하지 않았고, 과정 역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협회를 상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처음으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평창올림픽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처분신청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선수 측은 "이전 올림픽에서도 개막 직전까지 추가선발이 이뤄졌던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약 15분가량 진행된 이날 공판에선 협회와 선수 측이 해당 자료를 교환했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뒤 관련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봉준 기자

▶물오른 김신욱…1면에서 이어집니다

"최대치의 몸을 만들어둬야 당황하지 않고 적정 수준의 플레이를 할 수 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주위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치기 싫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게 당시 대표팀 합류를 기다리던 김신욱의 이야기였다.

안탈리아에 도착한 뒤에도 쉬지 않았다. 하루 1~2회 이뤄지는 선수단 공식 풀 트레이닝에서도 정열을 쏟지만 대표팀 이재홍 피지컬 코치의 지도를 받으면서 특별훈련을 따로 소화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대표팀 코칭스태프의 격려도 큰 도움이 됐다. 최근 대표팀 캠프에 합류할 때마다 신태용(48) 감독이 강조한 메시지가 있다. "자신을 키가 큰 선수로 여기지 말라!" 이 말을 태극전사 모두에게도 해줬다. 최근에도 키가 자라서 신장이 197.5cm가 된 김신욱의 머리와 발을 전부 활용하자는 의미였다.

이러한 플레이가 이미 익숙한 전북과 달리 어쩌다 한 번 모여 짧게 손발을 맞춰 A매치를 치르는 대표팀 동료들의 인식은 쉽게 바꾸기 어렵다. 그래도 오로지 제공권 다툼에만 전념해야 했던 헤딩 노예에서 전방위적인 득점 머신으로 발돋움시키면 대표팀 전력이 업그레이드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미 결실을 맺고 있다. 김신욱은 1월 30일 안탈리아 마르단스타디움에서 열린 북중미 다크호스 자메이카와의 친선경기(2-2)에서 2골을 몰아쳤다. A매치 통산 43경기 9골. 우리 대표팀이 1-0으로 이긴 몰도바전 결승골과 E-1 챔피언십 한일전(4-1) 2골까지 포함한 A매치 3경기 연속 득점으로 벤치의 신뢰에 보답했다.

5월 발표될 월드컵 최종엔트리 23인을 향한 사실상 마지막 생존게임, 그것도 더 없이 치열하게 이뤄진 스트라이커 경쟁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해온 김신욱은 신 감독의 눈도장을 확실하게 받았다. 본선까지 남은 4개월을 부상 없이, 지금의 감각을 유지해야 하는 부담이 크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다. 김신욱은 '이기는 실리축구'를 구사해야 하는 신태용호의 가장 확실한 최전방 카드라는 점이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